글로벌 DRM 기업으로 도약 '문제없다'

파수닷컴 대표 **조규곤**

"독자적인 기술력만이 중소업체가 세계 최고의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내 제일' 이 아니라 '세계 제일' 로 도약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켓리더' 로 회사를 키워갈 것입니다."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은 파수닷컴 조규곤 대표는 지난달 10일 창립기념식을 통해 '글로벌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기업 원년' 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 매출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조 대표는 "올해 매출 60억원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직원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글로벌 DRM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표적인 DRM 업체인 파수닷컴은 창립 이후 가장 바쁜 일정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밀려오는 컨설팅 및 제안 요청에 영업사원이나 개발팀들이 꼬박 밤을 세우기 일쑤다. 2000년 설립 이후 최고의 전성시대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다. 언론을 통해 내부 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내부 보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안이라고 하면 외부의 침입을 경계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내부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부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인 파수닷컴의 경우, 현재 국내외를 포함해 총 3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일 정도로 정신이 없다.

조 대표는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기에 사내 정보 유출 빈도도 그에 비례해 많다"며 "이에 따라 기업문서 보안기술의 실적용 사례도 많고 문제점 도출도 자연스럽게 많아져 기술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DRM 솔루션은 미국이 먼저 시작했지만,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며 "기업문서 보안 시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십분 활용한다면 미국의 대기업들과 충분히 겨뤄볼 만 하다"고 단언했다. 일본에도 몇몇 플레이어가 있지만 경쟁상대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 역시 미국이 주요 경쟁 대상인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시스템즈 같은 대기업이나 몇몇 DRM 전문업체들과 충분히 겨뤄볼 만 하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콘텐츠가 대중화되려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고 호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간편한 과금결제 방법과 DRM 표준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콘텐츠산업 활성화는 물론 외산 DRM이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DRM 표준 정립은 중요하다"며 표준 문제는 여전히 DRM 시장 확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리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DRM시장의 활성화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DRM업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펼쳐 표준화를 이룬다면 세계 시장 석권은 충분하다"고 낙관했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혜성 기자